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와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Self-Differentiation and Self-Disclosure of Unmarried Persons in Early Adulthood on Their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최지영 · 최연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Choi, Ji Young · Choi, Youn Shil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family of origin and self-disclosure of unmarried persons in early adulthood affected their own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which was one of the major developmental tasks for them.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differentiation, self-disclosure, and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of the single male and female adults investigated were generally at a moderate level. Second, for self-differentiation,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male and female adults mad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r self-disclosure,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female adults mad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at, but the male adults differed significantly from one another in that regard according to their family makeup and birth of order. As for connections between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single male and female adults and their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the male adults varied in that aspect with their birth order, and whether they were dating and considered getting married made a difference to that as well. In the event of the female adults, whether they considered getting married and how long they were dating made a difference in their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Third, concern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self-differentiation and self-disclosure of the unmarried male and female adults on their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their intimacy with the opposite sex improved as division occurred from their original families, when they opened themselves up to more people, when they thought of marriage more and when they were dating for a longer period of time.

Keywords : early adulthood, unmarried persons, self-differentiation, self-disclosure, intimacy

I. 서론

성인초기에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친밀감의 형성이다. 이 시기에 이성과의 만남과 친밀감의 형성은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친밀감의 형성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결혼으로 이르게 되는 동인(動因)으로도 작용한다(장휘숙, 2007). 가족생활주기에서 젊은 성인(young adult)의 단계는 어떠한 가족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상태

* Corresponding author: Choi, Youn Shil
Tel: 02-2287-5317, Fax: 02-2287-0061
E-mail: yschoi@smu.ac.kr

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확립하고 친밀한 이성 및 또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가족체계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정문자 외, 2007). 이 시기에 이성교제 중인 성인남녀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 정서적 지지, 정보 공유 등의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게 된다. 이 때, 지속적인 만남을 동반하는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한 경우, 이성교제 중인 성인남녀 간에는 깊은 정도로 정보가 공유되고 서로 간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면서 친밀감이 증가하게 된다(차정화, 전영주, 2002). 또한 이렇게 형성된 친밀감은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김현정, 김명자, 1999; 정윤경, 2004). 따라서 건강한 이성교제를 통해 형성된 친밀감은 인격의 성숙을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결혼 후 부부관계의 질을 예측할 수 있다.

친밀감의 정도는 성별 및 각 개인의 성격 및 대인관계 특성과 이성교제 중인 관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론되었다. 예컨대, 부모의 부부관계, 양육태도, 아동학대, 아동기의 애착, 그리고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등(박선미, 2003; 박은미, 1999) 개인내적인 변수와 대인관계적인 변수들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외에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가족유형, 출생순위 등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되는 배경변인으로 시도되었지만, 그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친밀감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개인내적 변수와 대인관계적 변수는 자아분화와 자기개방이 있다. 자아분화는 개인내적인 특성이지만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족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강조되어 왔으며(Bowen, 1994), 자기개방은 이성 간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있어 라포 형성과 상호 의존의 중간단계로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정현숙 외, 1998).

먼저 자아분화를 살펴보면, 이는 개인의 성장기에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성장 후 자신의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러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이신숙, 차용은, 2000). 자아분화는 사고와 감정 간의 분화로 사고와 감정이 잘 분화된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자기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의 미분화 정도가 심한 사람은 정서와 지성이 융해되어 있어서 그의 생활은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 쉽게 지배되며 역기능에 빠지기 쉽다(김정택 외, 1991). 같은 맥락에서 분화가 잘된 건강한 가족은 그 가족 내에서 가족원이 존중되고 인정되고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며, 가족원간에 상호만족감이 증진되고 개인의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지속되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규범을 형성하고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심리적 안녕과 성취감을 얻기 때문에, 분화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관계는 친밀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과 연관해서 세대간 독립성이나 분화의 양식 등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은 어린 시절의 부모-자녀관계가 현재 성인자녀들의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강은숙, 2005; 김현정, 김명자, 1999). 선행연구들에서 원가족으로부터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간의 갈등, 우울, 불안 등 여러 가지 역기능적 행동이 발생한다는 결과들(이종원, 2002; Garfinkel, 1980)이 나타나며, 원가족과의 관계가 성인초기 미혼남녀에서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은숙, 2005; 전영주, 2002; 차정화, 전영주, 2002).

다음으로 자기개방을 살펴보면, 이는 대인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주연, 2002; 신지영, 2000; 정윤경,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기개방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개인의 성장과 소외감 해소 등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관한 느낌, 생각, 경험, 감정, 자신의 관심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자기개방을 하지 않는 개인은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지적되어 왔다(임래길, 199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 관계 발달은 인간 상호간에 더 많은 개인적 정보를 줄 때 가능하며, 자기개방은 사회적 관계형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성교제에 있어서 자기개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에 속하는 미혼남녀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인과 대학생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성인초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학자마다 다소 다르고 또 사회적으로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성인초기도 변화하기

때문에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으나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배경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가족유형, 출생순위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이성교제 여부, 결혼고려 여부, 교제동기, 교제기간, 나이차 등 이성교제관련 변수들을 배경변인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자기개방, 친밀감의 전반적인 경향과 배경변인에 따른 이들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배경변인, 자아분화, 자기개방 등 본 연구에서의 주요변수들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작업을 통하여, 성인초기에 있는 미혼남녀들의 자아성장 도모를 돕고, 그들의 발달과업인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이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나 결혼예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배경변인, 자아분화,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성인초기의 발달과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제시한 Erikson(1968)은 인간의 자아발달을 8단계로 구분하였고, 각 단계에는 추구하는 발달과제가 있으며, 그 중심과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즉 ‘자기형성(formation of self)’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성인초기는 어떤 특정한 경력을 위한 연구와 일들, 이성과의 교제와 결혼, 그리고 가정형성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대인관계 형성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된다. 이 때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은 이전 단계의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

를 잘 극복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 자기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도피할 경우에는 고립되는 감정으로 이끌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인초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미래의 꿈을 형성하는 시기로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의 폭이 확장되기 때문에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가 되고 있다.

성인발달에 관심을 둔 Levinson *et al.*(1978)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본 바 있는데, 그들은 개인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전 생애를 자연의 사계절에 비유하여 ‘인생의 계절론’을 제시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성인초기에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과업은 첫째, 꿈의 형성과 삶의 구조 속에 꿈을 실현할 자리를 마련하는 일, 둘째, 직업을 갖는 일, 셋째, 사랑의 관계, 결혼 및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 중 사랑의 관계, 결혼 및 가족을 형성하는 일은 친밀감의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성교제는 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보인다(김애순, 2002; 윤진, 1992).

2. 자아분화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이는 Jung이 의미했던 ‘개성화(individuation)’와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제석봉, 1989). Bowen과 Jung의 큰 차이점은 Bowen이 개인의 정신내적 측면보다 대인 관계적 측면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Bowen에게 있어서 개성화는 미분화된 가족자아에서 가족 각자가 분리되어, 진짜 자신을 발달시켜 객관성과 독립성을 성취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말한다. 즉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켜 지적 기능(intellectual function)이 정서적 기능(emotional function)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잃지 않고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두 체계 사이의 균형은 불안의 정도나 자아분화 수준에 달려있다(Bowen, 1976).

자아분화 수준은 ‘진짜 자신’과 ‘가짜 자신’의 비례로 나타나는데 진짜 자신이 많을수록 분화의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가짜 자신이 많을수록 분화의 수준을 낮아진다. 분화에는 ‘기본분화(basic differentiatoin)’와 ‘기능분화

(functional differentiation)’가 있다. 기본분화란 어린 시절 이미 많이 형성된 자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시간에 따라서 잘 변화하지 않으며, 감정반사 행동과 지적 행동을 구분하여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지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관계된다. 기능분화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주어진 목표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개인의 기능분화 정도는 가족이 나타내는 만성적 불안 정도와 관계가 있으며, 분화가 덜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특별한 목적지향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정문자 외, 2007).

3. 자기개방

‘자기개방(self disclosure)’은 ‘자기공개’, ‘자기노출’, ‘자기표출’, ‘자아개방’ 등과 같은 의미로 쓰이며, 자기개방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연구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자기개방은 한 개인이 진실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이 알도록 할 때 생겨나며, 자신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적이고 비밀스런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중희, 1980). 또한 자기개방은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도 보여 지며(박수미, 2004),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반응과 그러한 반응에 관련된 과거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정윤경, 2004). 한편 Cozby(1973)는 언어를 통해 A가 B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어적인 표현으로 자기개방을 하지 않게 되면 참다운 자신을 실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이해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상대방도 그에게 자기개방을 하지 않게 되므로 진정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 자기개방을 살펴본 신원수, 변창진(1980)에 따르면, 자기개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적인 정보 개방과, 어떤 사건이나 사람과 관련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말하는 정의적 정보개방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시 긍정적 자기개방과 부정적 자기개방으로 나누어진다. 긍정적 자기개방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자신에 관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질의 진술 즉 정서적으로 유쾌함, 만족스러움, 자랑스러움, 속 시원함 등을 뜻하고, 부정적 자기개방은 남에게 비난받을 만하

거나 수치스러운 사건과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 및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자기개방은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나 느낌을 꾸밈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털어 놓고 말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자기개방은 건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성격을 성취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임명희, 2003).

4. 이성과의 친밀감

사람들은 이성교제에서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 생활의 모든 측면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규제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공유와 규제는 교제 중인 상대방에 대한 장·단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상호간의 차이점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 친밀감의 형성은 이성을 포함한 타인을 이해하고 깊은 공감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요구에 민감해지는 것이다(차정화, 전영주, 2002).

인간의 발달과 생애전반에 걸친 변화를 평생발달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Erikson(1968)은 발달단계 중 5단계인 성인초기에 친밀감 형성을 강조하였다. 친밀감 형성은 성인초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동시에 한 개인의 모든 대인관계와 이성교제에 필수조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성인초기의 남녀들은 부모나 가족이외의 다른 사람, 즉 친구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획득하게 되는데, 특히 특정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배우자선택, 결혼에 이르기도 한다.

이성교제는 성인초기의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발달과업, 인간관계, 그리고 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민과 주요갈등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권석만, 1997; 유정이, 1993). 이 시기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발달과업이 있지만 사랑과 성, 결혼 등은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이성관계에 대한 바른 성숙과 효율적인 관계가 요구되며, 이성관계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이성과 나누는 사랑만큼 즐거움과 고통, 두려움, 기쁨, 슬픔을 한꺼번에 그리고 강렬하게 맛보게 되는 경험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이성관계는 이성에 대한 이해와 원만한 인간관계, 성숙한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며,

결혼 상대자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탐색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본질과 기쁨을 체득할 수 있으며, 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자신의 성에 대한 바른 자세와 역할을 정립하게 된다. 심리학자인 Sternberg(1986)는 사랑의 구성요소를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헌신(commitment)으로 설명하였으며, 친밀감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5. 자아분화, 자기개방 및 이성과의 친밀감의 관계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성과의 친밀감을 주로 자아분화나 자기개방, 각각과 연결시켜 독립적으로 분석해 왔기 때문에,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아분화, 자기개방과 이성과의 친밀감을 함께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현재까지의 연구들이 가족관계나 가족치료 분야에서 성인초기에 이성과의 친밀감과 원가족과의 관계, 혹은 이성과의 친밀감과 자기표출, 자기개방 각각의 관계 분석에 주로 치중하면서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 자아분화나 자기개방 등의 상대적 영향력 파악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자아분화와 이성과의 친밀감을 살펴보면, 현재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부관계나 의미 있는 관계에서 결혼만족도(Lim & Jennings, 1996; McCreanor, 1988), 결혼안정성(전춘애, 1994), 정서적인 친밀감(McCreanor, 1988)의 수준이 높았으며, 반대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간에 스트레스 갈등, 우울, 불안 등 여러 가지 역기능적 행동이 발생한다는 결과들(금운순, 1996; 이종원, 2002; 이창만, 1992; 이현주, 1998; 한미향, 1999; Garfinkel, 1980; Kear, 1978; Mee-Gaik, 1991)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원가족과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영향과 관련되는 정서적 단절, 가족투사과정, 자아통합, 가족퇴행, 정서적 기능 대 인지적 기능 등 자아분화는 이성과의 친밀감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강은숙(2005)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커플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정화, 전영주(2002)의 연구에서는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남성일수록 파트너에 대한 친밀감을 높게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기개방과 이성과의 친밀감과 관련해서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김교현(1994)은 자기개방과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도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많이 개방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자기개방으로 상대방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기개방은 인간관계의 수준을 통제하는데, 자기를 더 개방할수록 상대방도 자기를 개방하며 그에 따라 친밀감이 증가한다. 누군가가 자기개방이나 노출을 많이 하게 되면 우선 그 사람에 대한 친근감이 생기게 되고 서로가 자기개방을 많이 하게 되어 공감대가 확대되면 점차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밀감이 커지게 된다(설기문, 1997). 이에 대한 이유는 상대방은 나의 자기개방을 자신에 대한 호의와 신뢰감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무엇인가 답례를 해야만 한다는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기개방은 양방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접촉이 시작되면 이들은 상호조절된 속도에 따라 자기공개를 교환하는데, 관계의 특성이나 진전단계에 따라 그 관계에서 허용되는 자기공개 수준이 존재한다. 권석만(1997)에 따르면, 이성관계에서 사람들은 서로 이 수준을 서서히 증가시킴으로써 관계를 발전시킨다. 따라서 관계의 초기단계에서 내밀한 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자기공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기개방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빠르거나 과도한 자기개방은 인간관계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태연 외, 2006). 이성과의 친밀감에서 자기개방은 이성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밀한 관계가 확립되면 자기개방이 더욱 증진될 수도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에서 39세의 성인초기에 속하는 미혼남녀 총 32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을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

들(자아분화 척도, 자기개방 척도, 이성과의 친밀감 척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7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1주간 성인기 미혼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기간 동안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문항 중 특별히 이해가 어려운 문항이 나타나 수정·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아분화 척도는 36 문항에서 34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자기개방 척도와 이성과의 친밀감 척도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3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에서 41일 동안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와 연구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 받은 조사요원 3명이 직접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조사요원들이 교회 5곳, 은행 5개 지점, 대학교 5곳, 기업 7곳 등을 방문해 연구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370부가 배포되었는데, 내용기재가 부실한 것과 연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남성 101부, 여성 222부 총 323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대부분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 거친 척도들을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검증을 거친 후 보완하였다. 또한 척도를 번역함에 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수정이 불가피한 척도에 대해서는 관련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들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1) 배경변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강은숙, 2005; 김종희, 1980; 차정화, 전영주, 2002)에서 살펴 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가운데 자아분화, 자기개방, 친밀감 등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연령, 직업, 종교, 가족유형, 출생순위, 이성교제 여부, 결혼 고려 여부, 교제기간, 나이차 등의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인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2) 자아분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Bowen (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7문항), 자아의 통합(6문항), 가족투사과정(4문항), 그리고 정서적 단절(6문항)과 가족퇴행(11문항) 등 총 34개이며,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분화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러하다(3점)”, “매우 그러하다(4점)” 등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최하 34점에서 최고 136점으로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역채점 처리할 문항들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며,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68, 자아통합 .51¹⁾, 가족투사과정 .81, 정서적 단절 .75, 가족퇴행 .84이다.

3) 자기개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iller *et al.*(1988)이 개발하고 박선영(1996)이 번안한 자기개방척도(SDI: Self-Disclosure Index)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에게 얼마나 자신을 개방하는지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친구에게 얼마만큼 자신을 개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거의 하지 않는다(1점)”, “하지 않는 편이다(2점)”, “조금 한다(3점)”, “거의 다 한다(4점)”로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최하 10점부터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로 나타났다.

4) 이성과의 친밀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성과의 친밀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Sternberg(1986)가 제작한 사랑의 삼각형이론 척도(The Triangle Theory of Love Scale)를 권석만(1997)이 번

1) 자아통합의 하위영역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항수가 적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둘째, 다른 하위영역과 중복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통합은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다른 하위영역들과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혼여성의 경우에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아주 약한 부적 상관(-.1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랑의 세 구성요소인 친밀감, 열정, 헌신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 영역만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5개이며,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등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최하 15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모든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 작업을 한 후, SPSS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성인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이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배경변인,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 분산팽창요인(VIF), 공차한계(tolerance)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배경변인, 성인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323명으로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징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101명(31.3%), 여성이 222명(68.7%)으로 여성의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이다. 연령은 20세에서 39세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을 살

펴보면 20-24세인 99명(30.7%), 25-29세는 166명(51.3%), 30-34세는 52(16.1%), 35-39세는 6명(1.9%)으로 나타나 20대가 30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은 35명(10.8%), 전문대학 졸업은 51명(15.8%), 대학 재학생은 81명(25.2%), 대학 졸업생은 77명(23.8%), 대학원 재학생은 54명(16.7%), 대학원 졸업생은 25명(7.7%)으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조사대상자의 현재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 126명(39.0%), 직장인 197명(61.0)으로 직장인의 비율이 훨씬 높다. 종교는 기독교가 147명(45.5%), 천주교가 20명(6.2%), 불교가 31명(9.6%), 무교가 125명(38.7%), 기타 종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 신자가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가족유형은 핵가족이 217명(67.2%), 한 부모가족이 81명(25.1%), 3세대 가족이 25명(7.7%)으로 전체적으로 핵가족적인 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첫째 자녀가 138명(42.7%), 중간 자녀가 50명(15.5%), 막내 자녀가 115명(35.6%), 외동이 20명(6.2%)으로 첫째 자녀와 막내 자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이성교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재 교제 중인 조사대상자가 153명(47.4%), 과거 사귀 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사귀는 이성이 없는 응답자가 170명(52.6%)으로 나타나 현재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비율이 약간 상회하였다. 결혼 고려 여부는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142명(44.0%), 교제 후에 결혼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자가 181명(56.0%)으로 교제 후에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조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제 동기의 특성으로는 알던 사이가 185명(57.3%), 친구 소개가 84명(26.0%), 사이버 채팅과 미팅으로 만나는 경우가 14명(4.3%), 친·인척 소개가 13명(4.0%) 순으로 알던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교제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인 60명(18.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66명(20.4%), 1년 이상 2년 미만인 61명(18.9%), 2년 이상 3년 미만인 29명(9.0%), 3년 이상이 64명(19.8%)로 나타났다.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연하가 56명(55.4%), 동갑인 경우는 24명(23.8%), 연상인 경우는 9명(8.9%)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연하가 24명(10.8%), 동갑인 72명(32.4%), 연상인 경우가 105명(47.3%)으로 남성의 경우 연하의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경우 연상의 남성과 교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전체(N=323)		남성(n=101)		여성(n=222)	
		n	%	n	%	n	%
연령 n=323	20-24세	99	30.7	25	24.8	74	33.3
	25-29세	166	51.4	53	52.5	113	50.9
	30-34세	52	16.1	19	18.8	33	14.9
	35-39세	6	1.9	4	4.0	2	0.9
학력 n=323	고졸	35	10.8	13	12.9	22	9.9
	전문대졸	51	15.8	12	11.9	39	17.6
	대학재학	81	25.2	31	30.8	50	22.5
	대학졸업	77	23.8	22	21.8	55	24.8
	대학원재학	54	16.7	13	12.9	41	18.4
직업 n=323	대학원졸업	25	7.7	10	9.7	15	6.8
	학생	126	39.0	43	42.6	83	37.4
종교 n=323	직장인	197	61.0	58	57.4	139	62.6
	기독교	147	45.5	41	40.6	106	47.7
	천주교	20	6.2	6	5.9	14	6.3
	불교	31	9.6	10	9.9	21	9.5
가족유형 n=323	무교	125	38.7	44	43.6	81	36.5
	핵가족	217	67.2	58	57.5	159	71.6
	한 부모가족	81	25.1	36	35.6	45	20.3
출생순위 n=323	3세대 가족	25	7.7	7	6.9	18	8.1
	첫째자녀	138	42.7	41	40.6	97	43.7
	중간자녀	50	15.5	10	9.9	40	18.0
	막내	115	35.6	42	41.6	73	32.9
이성교제 여부 n=323	외동	20	6.2	8	7.9	12	5.4
	현재 교제 중	153	47.4	49	48.5	104	46.8
결혼고려 여부 n=323	교제중인 이성이 없다	170	52.6	52	51.5	118	53.2
	고려하고 있다	142	44.0	47	46.5	95	42.8
교제동기 n=296	교제 후 고려	181	56.0	54	53.5	127	57.2
	친구소개	84	26.0	31	30.7	53	23.9
	친,인척소개	13	4.0	2	2.0	11	5.0
	사이버채(미)팅	14	4.3	2	2.0	12	5.4
교제기간 n=280	알던사이	185	57.3	57	56.4	128	57.7
	6개월 미만	60	18.6	18	21.2	42	21.5
	6개월 이상-1년	66	20.4	20	23.5	46	23.6
	1년 이상-2년	61	18.9	21	24.7	40	20.5
	2년 이상-3년	29	9.0	8	9.4	21	10.8
나이차 n=290	3년 이상	64	19.8	18	21.2	46	23.6
	연하	80	24.8	56	55.4	24	10.8
	동갑	96	29.7	24	23.8	72	32.4
	연상	114	35.3	9	8.9	105	47.3

2. 미혼남녀의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

미혼남녀의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아분화는 가족구성원의 개인분화 정도에 초점을 두며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으로 살펴보면, 가족투사과정이나 가족퇴행 측면에서의 자기분화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통합은 남성이 더 잘 되어있고, 가족투사과정은 여성이 남성보다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방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나 느낌을 꾸밈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털어놓고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자기개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자기개방 정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고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성과의 친밀감은 성인초기 미혼남녀가 이성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생활의 모든 측면

<표 2> 미혼남녀의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평균(표준편차)		계	t	
	남 n=101	여 n=222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2.91 (.43)	2.87 (.39)	2.88 (.40)	.937	
자아통합	2.75 (.30)	2.67 (.33)	2.69 (.33)	2.16*	
자아분화	가족투사과정	2.90 (.62)	3.06 (.53)	3.00 (.56)	-2.26*
	정서적 단절	2.80 (.43)	2.87 (.56)	2.85 (.52)	-1.14
	가족퇴행	2.96 (.43)	2.96 (.47)	2.96 (.45)	-1.12
자기개방	2.97 (.50)	3.06 (.52)	3.03 (.51)	-1.42	
이성과의 친밀감	2.99 (.54)	2.92 (.43)	2.94 (.47)	1.22	

*p<.05

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규제해 나가면서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이성과의 친밀감 정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미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의 차이

1) 미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분화 차이

미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미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개방의 차이

먼저, 다음의 <표 3>은 미혼남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개방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연령, 직업, 종교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성교제 여부, 결혼 고려 여부, 교제기간, 나이차 등 교제관련 변인 등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개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배경변인 중 가족유형과 출생순위와 같은 원가족과의 관련성이 깊은 변인들이 자기개방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의 경우, 자기개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53, p<.05$)가 나타났다. 3세대 가족 3.20, 핵가족 3.05, 한부모가족 2.80 순으로 3세대가족에서 자란 경우 자기개방을 더 많이 하며, 한부모가족에 속할 경우

자신의 정보를 적게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볼 때, 가족 내에서 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상황이 자기개방과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받을 수 있다.

출생순위의 경우에는 외동 자녀 3.25, 첫째 자녀 3.10, 중간 자녀 2.91, 막내 자녀 2.81순으로 자기개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36, p<.05$). 이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기개방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힌 김종희(1980)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교제기간의 경우, 3년 이상 3.14, 6개월 이상 1년 미만 3.11, 6개월 미만 3.06, 1년 이상 2년 미만 2.93, 2년 이상 3년 미만 2.50순으로 자기개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89, p<.05$).

<표 3> 미혼남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개방의 차이 (N=101)

변인	구분	n	M(sd)	t/F	Duncan
연령 n=101	20-24세	25	3.02(.45)	.72	
	25-29세	53	2.90(.51)		
	30-34세	19	3.07(.51)		
	35-39세	4	3.08(.77)		
직업 n=101	학생	43	2.93(.49)	-.68	
	직장인	58	3.00(.52)		
	기독교	41	3.06(.48)		
종교 n=101	천주교	6	3.17(.48)	1.55	
	불교	10	2.99(.37)		
	무교	44	2.86(.54)		
가족유형 n=101	핵가족	58	3.05(.49)	3.53*	ab
	한 부모가족	36	2.80(.50)		a
	3세대 가족	7	3.20(.37)		b
출생순위 n=101	첫째자녀	41	3.10(.47)	3.36*	ab
	중간자녀	10	2.91(.60)		ab
	막내	42	2.81(.45)		a
	외동	8	3.25(.60)		b
이성교제 여부 n=101	현재 교제 중	49	2.96(.46)	-.21	
	교제중인 이성 없었다	52	2.98(.54)		
결혼고려 여부 n=101	고려하고 있다	47	2.98(.50)	.12	
	교제 후 고려	54	2.97(.51)		
교제기간 n=85	6개월 미만	18	3.06(.43)	2.89*	b
	6개월 이상-1년	20	3.11(.59)		b
	1년 이상-2년	21	2.93(.52)		b
	2년 이상-3년	8	2.50(.34)		a
	3년 이상	18	3.13(.39)		b
나이차 n=89	연하	56	2.96(.54)	2.00	
	동갑	24	3.15(.42)		
	연상	9	2.82(.24)		

*p<.05

ab: 사후검증(Duncan)의 알파벳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미혼여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개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미혼남녀의 배경변인에 따른 이성과의 친밀감의 차이

먼저, 미혼남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이성과의 친밀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연령, 직업, 종교, 가족유형, 나이차 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배경변인 중에서는 출생순위, 교제 특성과 관련된 배경변인 중에서는 이성교제 여부와 결혼고려 여부, 교제기간이 이성과의 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출생순위의 경우, 이성과의 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표 4> 미혼남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이성과의 친밀감의 차이 (N=101)

변인	구분	n	M(sd)	t/F	Duncan
연령 n=101	20-24세	25	2.88(.62)	1.49	
	25-29세	53	2.95(.49)		
	30-34세	19	3.21(.51)		
	35-39세	4	3.02(.70)		
직업 n=101	학생	43	2.94(.57)	-.79	
	직장인	58	3.02(.52)		
	기독교	41	3.06(.60)		
종교 n=101	천주교	6	2.93(.35)	.72	
	불교	10	3.07(.39)		
	무교	44	2.90(.53)		
가족유형 n=101	핵가족	58	2.99(.58)	.09	
	한 부모가족	36	2.97(.52)		
	3세대 가족	7	3.07(.25)		
출생순위 n=101	첫째자녀	41	2.95(.57)	2.92*	ab
	중간자녀	10	2.57(.39)		a
	막내	42	3.10(.50)		b
	외동	8	3.10(.52)		b
이성교제 여부 n=101	현재 교제 중	49	3.13(.50)	2.67**	
	교제중인 이성 없었다	52	2.85(.55)		
결혼고려 여부 n=101	고려하고 있다	47	3.13(.49)	2.64**	
	교제 후 고려	54	2.86(.55)		
교제기간 n=85	6개월 미만	18	2.81(.47)	2.65*	a
	6개월 이상-1년	20	3.22(.62)		a
	1년 이상-2년	21	2.81(.62)		a
	2년 이상-3년	8	2.98(.56)		a
	3년 이상	18	3.22(.44)	a	
나이차 n=89	연하	56	3.01(.54)	.83	
	동갑	24	2.96(.63)		
	연상	9	3.24(.51)		

* $p < .05$, ** $p < .01$

ab: 사후검정(Duncan)의 결과값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나타났다($f = 2.92$, $p < .05$). 막내 자녀와 외동 자녀가 3.10, 첫째 자녀 2.95, 중간 자녀 2.57 순으로, 중간 자녀 보다는 막내 자녀, 외동 자녀, 첫째 자녀들이 이성에게 친밀감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의 경우, 이성과의 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2.67$, $p < .01$). 즉, 현재 교제 중인 이성 이 없는 남성보다 현재 교제 중인 이성 이 있는 남성이 이성에게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고려 여부의 경우, 이성과의 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2.64$, $p < .01$). 즉, 현재 교제 중인 이성 이 없는 남성보다 현재 교제 중인 이성 이 있는 남성이 이성에게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기간의 경우, 이성과의 친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2.65$, $p < .05$). 교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과 3년 이상이 3.22, 2년 이상 3년이 2.98, 6개월 미만과 1년 이상 2년 미만이 2.81순으로 교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와 3년 이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이성에게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5>는 미혼여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이성과의 친밀감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연령, 직업, 종교, 가족유형, 출생순위, 나이차 등 대부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교제관련 특성을 갖는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성교제 여부의 경우, 현재 교제 중인 이성 이 없는 여성 보다는 현재 교제 중인 여성 이 이성에게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t = 3.35$, $p < .001$).

결혼고려 여부의 경우, 교제 후에 결혼을 고려하기 보다는 결혼을 고려하고 이성을 만날 경우 이성에게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4.96$, $p < .001$).

교제기간의 경우, 권석만(1997)은 만남의 횟수와 교제기간에 비례하여 이성교제 커플의 친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6개월 이상 1년 미만 2.93, 1년 이상 2년 미만 2.98, 3년 이상 3.06, 2년 이상 3년 미만이 3.13순으로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성에게 친밀감을 더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

〈표 5〉 미혼여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이성과의 친밀감의 차이 (N=222)

변인	구분	n	M(sd)	t/F	Duncan
연령 n=222	20-24세	74	2.93(.41)	.47	
	25-29세	113	2.90(.44)		
	30-34세	33	2.96(.46)		
	35-39세	2	2.63(.42)		
직업 n=222	학생	83	2.97(.42)	1.32	
	직장인	139	2.89(.43)		
종교 n=222	기독교	106	2.94(.40)	1.76	
	천주교	14	2.73(.37)		
	불교	21	3.04(.43)		
	무교	81	2.90(.47)		
가족유형 n=222	핵가족	159	2.91(.46)	1.45	
	한 부모가족	45	2.88(.35)		
	3세대 가족	18	3.08(.43)		
출생순위 n=222	첫째자녀	97	2.90(.45)	.82	
	중간자녀	40	2.90(.46)		
	막내	73	2.97(.39)		
	외동	12	2.79(.38)		
이성교제 여부 n=222	현재 교제 중	104	3.02(.43)	3.35***	
	교제중인 이성 이 없다	118	2.83(.41)		
결혼고려 여부 n=222	고려하고 있다	95	3.08(.43)	4.96***	
	고제 후 고려	127	2.80(.38)		
교제기간 n=195	6개월 미만	42	2.67(.46)	6.72***	a
	6개월 이상-1년	46	2.93(.40)		b
	1년 이상-2년	40	2.98(.40)		b
	2년 이상-3년	21	3.13(.44)		b
나이차 n=201	3년 이상	46	3.06(.37)	1.01	b
	연하	24	2.98(.48)		
	동갑	72	2.87(.48)		
	연상	105	2.96(.39)		

***p<.001

ab: 사후검증(Duncan)의 알파벳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6〉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남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연령	1															
2. 직업	-.54**	1														
3. 종교	-.20*	.15	1													
4. 가족유형	-.30**	.26**	.17	1												
5. 출생순위	-.13	.02	.08	.06	1											
6. 이성교제 여부	.17	-.12	.05	-.13	.05	1										
7. 결혼고려 여부	.28**	-.36**	.10	-.12	.08	.48**	1									
8. 교제기간	.27*	-.15	-.07	-.04	-.20	-.04	.23*	1								
9. 나이차	-.29**	.30**	.21	.27*	.03	-.11	-.17	.06	1							
10.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07	.05	.16	.01	-.04	-.06	-.03	.04	.09	1						
11. 자아통합	.00	-.05	.04	.08	-.09	.04	.11	-.10	.10	-.18	1					
12. 가족투사과정	.06	-.02	.04	.01	-.10	.13	.06	.13	.17	.40**	-.12	1				
13. 정서적 단절	-.15	.06	.13	.02	.04	-.01	-.07	.12	-.01	.19	-.05	.46**	1			
14. 가족퇴행	.04	.02	.05	.15	.00	.13	.05	.04	-.22*	.13	.10	.25*	.33**	1		
15. 자기개방	.05	-.09	.20*	.13	.21*	-.03	.03	-.07	.05	-.09	.12	-.01	-.07	-.05	1	
16. 이성과의 친밀감	.15	-.07	.16	-.00	-.02	.27**	.29*	.18	.09	.15	.20*	.30**	-.07	.23*	.24*	1

*p<.05, **p<.01

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72, p<.001$).

4. 미혼남녀의 자아분화,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1)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미혼남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방지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사이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6이상으로 높은 것이 없었으나, .5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계수가 있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하였다. 미혼남성의 경우는 공차한계는 .53~.90, VIF는 1.10~1.87, 미혼여성의 경우는 공차한계는 .60~.96, VIF는 1.03~1.66의 범위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이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남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종교, 가족유형, 출생순위, 이성교제 여부, 결혼고려 여부, 교제기간, 나이차, 자아분화, 자기개방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7〉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여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연령	1															
2. 직업	.47**	1														
3. 종교	-.10	.06	1													
4. 가족유형	-.07	.14*	.00	1												
5. 출생순위	.02	.01	-.03	.11	1											
6. 이성교제 여부	-.04	.13*	-.02	.03	-.01	1										
7. 결혼고려 여부	.18**	.12	.03	-.04	.10	.50**	1									
8. 교제기간	.19**	-.03	-.02	-.03	.15*	.18*	.31**	1								
9. 나이차	-.03	-.09	.09	.00	-.01	.09	.13	-.03	1							
10.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04	.01	.11	.04	.05	-.04	.03	-.05	-.11	1						
11. 자아통합	.07	.02	-.14*	-.01	-.08	.02	-.04	-.01	-.11	-.14*	1					
12. 가족투사과정	.02	-.01	-.01	.00	-.03	.07	.04	-.00	-.06	.27**	.01	1				
13. 정서적 단절	-.16*	.07	.21**	.04	-.05	.04	-.03	.04	-.04	.22**	.01	.33**	1			
14. 가족퇴행	-.08	.14*	.10	-.02	.10	.08	.07	.08	-.06	.27**	.09	.19**	.54**	1		
15. 자기개방	-.04	.01	-.08	.09	-.00	.02	-.00	.08	.08	-.06	.01	-.16*	.10	.07	1	
16. 이성과의 친밀감	-.02	.12	.05	-.03	-.03	.20**	.32**	.30**	.03	.10	.12	.08	.05	.21**	.15*	1

* $p < .05$, ** $p < .01$

2) 미혼남성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배경변인, 자아분화, 자기개방의 상대적 영향력

다음의 <표 8>은 미혼남성의 배경변인, 자아분화,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모델 I 은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제시한 것이다. 미혼남성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배경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자아분화 하위

〈표 8〉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배경변인, 자아분화,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표준오차	b	β	표준오차	b	β	표준오차
<배경변인>									
연령	.11	.15	.09	.03	.04	.09	.01	.01	.08
직업 ^{a)}	-.06	-.06	.15	.00	.00	.14	.02	.01	.13
종교 ^{b)}	.13	.11	.13	.23	.20	.12	.16	.14	.12
가족유형 ^{c)}	.06	.05	.14	-.06	-.06	.13	-.13	-.11	.13
출생순위 ^{d)}	-.08	-.07	.13	.02	.02	.12	-.06	-.05	.12
이성교제 여부 ^{e)}	.25	.22	.14	.14	.12	.13	.16	.14	.12
결혼고려 여부 ^{f)}	.06	.06	.16	.04	.04	.14	.08	.07	.14
교제기간	.03	.08	.05	.06	.16	.04	.06	.16	.04
나이차	.11	.13	.10	.05	.06	.10	.08	.10	.10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17	-.13	.14	-.12	-.10	.14
자아통합				.33	.20	.17	.29	.17	.16
가족투사과정				.39	.43***	.11	.35	.39**	.11
정서적 단절				-.57	-.43***	.16	-.53	-.40***	.15
가족퇴행				.43	.32**	.15	.45	.34**	.14
자기개방							.28	.25*	.11
R^2		.04			.27			.32	
ΔR^2					.23			.05	
F값		1.39			3.17***			3.58***	

* $p < .05$, ** $p < .01$, *** $p < .001$

주: 배경변인 중에서 명목변수인 직업, 종교, 가족유형, 출생순위, 이성교제 여부, 결혼고려 여부를 가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a): 직업(학생: 1, 직장인: 0), b): 종교유무(있다: 1, 없다: 0), c): 가족유형(핵가족: 1, 3세대가족, 한 부모가족: 0), d): 출생순위(첫째: 1, 첫째 외: 0), e): 이성교제 여부(현재 교제중: 1, 현재 교제중인 이성인 없다: 0), f): 결혼고려 여부(고려한다: 1, 교제 후 고려한다: 0)

영역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이다. R^2 의 변화량은 .25로 나타났다.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인 가족투사과정($\beta=.43, p<.001$), 정서적 단절($\beta=-.43, p<.001$), 가족퇴행($\beta=.32, p<.01$)이 미혼남성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9%이다.

모델 III에서는 자아분화와 자기개방을 모두 투입하여 이성과의 친밀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R^2 의 변화량은 .05로 나타났다.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인 가족투사과정($\beta=.39, p<.01$), 정서적 단절($\beta=-.40, p<.001$), 가족퇴행($\beta=.34, p<.01$)과 자기개방($\beta=.25, p<.05$)이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44%이다.

3) 미혼여성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배경변인, 자아분화, 자기개방의 상대적 영향력

다음의 <표 9>은 미혼여성의 배경변인, 자아분화,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모델 I 은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배경변인의 영

향력을 제시한 것이다. 배경변인 중 결혼 고려 여부($\beta=.26, p<.01$)와 교제기간($\beta=.25, p<.001$)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성과의 관계에서 교제기간이 길고 결혼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이성에게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19%이다.

모델 II는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자아분화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이다. R^2 의 변화량은 .07으로 나타났다. 모델 I 과 마찬가지로 결혼 고려 여부($\beta=.24, p<.01$)와 교제기간($\beta=.25, p<.001$),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자아통합($\beta=.14, p<.05$), 가족퇴행($\beta=.22, p<.01$)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결혼을 고려하고 교제기간이 길며 부모로부터 자아통합과 가족퇴행이 일어날수록 이성에게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26%이다.

모델 III에서는 자아분화와 자기개방을 모두 투입하여 이성과의 친밀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R^2 의 변화량은 .07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중에서는 모델 II와 마찬가지로 결혼 고려 여부($\beta=.19, p<.01$)와 교제기간(β

<표 9> 미혼여성의 배경변인, 자아분화,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표준오차	b	β	표준오차	b	β	표준오차
<배경변인>									
연령	-.07	-.11	.05	-.07	-.11	.05	-.07	-.11	.05
직업 ^{a)}	.02	-.02	.07	-.05	-.05	.07	-.04	-.04	.07
종교 ^{b)}	.06	.07	.06	.08	.09	.06	.10	.11	.06
가족유형 ^{c)}	-.01	-.01	.07	.01	.01	.06	-.01	-.01	.06
출생순위 ^{d)}	-.09	-.10	.06	-.10	-.12	.06	-.10	-.11	.06
이성교제 여부 ^{e)}	.04	.04	.07	.05	.06	.07	.05	.05	.07
결혼고려 여부 ^{f)}	.23	.26 **	.07	.21	.24 **	.07	.21	.24 **	.07
교제기간	.08	.25 ***	.02	.08	.25 ***	.02	.07	.24 ***	.02
나이차	-.01	-.02	.04	.01	.01	.04	-4.73E	.00	.04
인지적 기능 대				.12	.10	.08	.13	.11	.08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19	.14 *	.09	.18	.14 *	.09
가족투사과정				.04	.05	.06	.06	.07	.06
정서적 단절				-.13	-.16	.06	-.14	-.18 *	.06
가족퇴행				.20	.22 **	.07	.19	.20 *	.08
자기개방							.11	.13	.06
R^2		.15			.20			.21	
ΔR^2					.05			.01	
F값		4.68 ***			4.42 ***			4.42 ***	

* $p<.05$, ** $p<.01$, *** $p<.001$

주: 배경변인 중에서 명목변수인 직업, 종교, 가족유형, 출생순위, 이성교제 여부, 결혼고려 여부를 가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a) 직업(학생: 1, 직장인: 0), b) 종교유무(있다: 1, 없다: 0), c) 가족유형(핵가족: 1, 3세대가족, 한 부모가족: 0), d) 출생순위(첫째: 1, 첫째 외: 0), e) 이성교제 여부(현재 교제중: 1, 현재 교제중인 이성 없음: 0), f) 결혼고려 여부(고려한다: 1, 교제 후 고려한다: 0)

=.24 $p<.001$), 부모로부터 자아통합($\beta=.14$ $p<.05$), 정서적 단절($\beta=-.18$ $p<.05$), 가족퇴행($\beta=.20$ $p<.05$)이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27%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주로 자아분화,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은 모두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다. 먼저 자아분화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의 성인초기 미혼남녀들은 어느 정도 목표지향활동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소 갈등을 경험하더라도 갈등으로부터 쉽게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석봉(1989)에 따르면, 자아분화가 보통 이상의 수준을 넘어갈 때, 주변 환경의 영향력을 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지향활동은 일정한 수준에서 가능하며,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는 하더라도 갈등으로 인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볼 때,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자아분화 수준은 주변 환경의 영향력에서 독립하여 어느 정도의 목표 추구가 가능하며, 또한 갈등에서의 회복력도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자기개방 수준도 보통 이상이다. 자기개방이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나 느낌을 꾸밈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털어놓고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볼 때(권석만, 1997; 설기문, 1997; 이태연 외, 2006),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노출시키고 자기를 표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성과의 친밀감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서 원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은 성인초기의 주요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밀감 형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인 성인초기 미혼남성과 미혼여성 간에 자아분화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아분화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통합은 남성이 더 잘 되어있고, 가족투사과정은 여성이 남성보다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혼남녀의 자아분화를 연구한 김경자(2004)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아분화를 하위영역별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자아분화 수준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으며, 이의 정교한 규명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차와 자기분화에 초점을 맞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성과의 친밀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성교제 중인 커플 남녀의 친밀감을 연구한 차정화, 전영주(2002)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친밀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은숙(2005)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이성과의 친밀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볼 때, 각 연구들에 있어서 조사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연령대, 결혼지위, 표집지역, 측정도구 등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이 변수들에 대해서 성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작업은 보다 치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미혼남녀의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은 배경변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은 특정한 배경변인에 따라서 자아분화, 자기개방, 이성과의 친밀감에서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자아분화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개방에서는 미혼여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혼남성에서는 배경변인에 따라 자기개방의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남성에 있어서도 특별히 관심을 끄는 사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성교제 여부, 결

혼 고려 여부, 나이차 등 교제관련 변인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개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배경변인 중 가족유형과 출생순위와 같은 원가족과의 관련성이 깊은 변인들과 교제기간이 자기개방에서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성인초기 미혼남성에 있어서는 3세대가족에서 외동자녀로 자란 경우, 자기개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서 본다면, 성인초기 미혼남성은 3세대 가족에서 조부모들과 동거하는 환경에서 외동자녀로 성장한 경우, 핵가족에서 다른 자녀들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보다 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고 자라면서 자기개방이나 표현의 기술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성인초기 미혼남성에 있어서 2년 이상 3년 미만 사이에 자기개방이 떨어지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으로서 어느 정도의 교제기간이 지속되면서 자기개방 수준이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개방이 3년 이상을 넘어서면서 안정된 관계로 진입하는 경우 다시 자기개방이 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성과의 친밀감에서는 미혼남성은 출생순위, 이성교제 여부, 결혼고려 여부, 교제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은 이성교제 여부, 결혼고려 여부, 교제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성교제 여부나 결혼고려 여부에 따라 성인초기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성과의 친밀감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즉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결혼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이성과의 친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할 대상이 있거나, 또 결혼이라는 단계로의 진입을 상정하고 있을 때, 심리적·정서적 연대감과 가까움의 정도인 이성과의 친밀감 수준이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외 성인초기 미혼남성은 출생순위, 교제기간에 따라, 미혼여성은 교제기간에 따라 각각 이성과의 친밀감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혼남성은 외동자녀나 막내자녀인 경우, 교제기간이 6개월-1년, 3년 이상인 경우, 미혼여성은 교제기간이 길 경우, 이성과의 친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는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서 원가족에서의 배경이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외동자녀나 막내자녀인 경우 부모님이나 다른 주변사람들로부터 애정과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또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의 교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친밀감 형성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미혼남성들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교제기간별로 이성과의 친밀감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체로 자기개방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비교적 교제 초기와 3년 이상의 교제가 장기화되는 시기에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미혼남성의 경우, 초기 관계 탐색의 시기와 관계가 안정화되는 시기에 친밀감이 형성되고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미혼여성의 경우는 교제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의 경과 속에서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친밀감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시켰을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배경변인 중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이성과의 친밀감에서 차이가 산출되지 않은 변인들이다. 연령, 직업, 종교, 가족유형, 나이차 등으로서 이 변인들은 주로 교제관련 변인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강한 변인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이성과의 친밀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혼남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는 성별에 따라 다른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자아분화 중 정서적 단절, 가족투사과정, 가족퇴행과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고, 미혼여성의 경우는 배경변인 중 결혼고려 여부, 교제기간, 그리고 자아분화 중 가족퇴행, 정서적 단절, 자아통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개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배경변인, 자아분화, 자기개방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작용하며, 특히 남성에게는 자아분화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며, 여성에게는 배경변인 중 결혼고려 여부와 교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미혼남성의 경우,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정서적 단절과 가족투사과정, 미혼여성의 경우는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가족퇴행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가족투사과정,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자아통합이 영향을 미치는 점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미혼남성의 경우는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서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거의 받지 않고, 자아분화의 영향력을 크게 받으며, 특히 원가족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역기능적 증상이 발생할 때 부부간의 문제가 자녀에게 투사되는 가족투사과정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등에서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이성과의 관계 형성에서 결혼 고려 여부와 교제기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자아분화 중에서도 가정에 문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가족퇴행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 등을 통해 역시 미혼여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등에서 성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 사고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이성교제에 있어 미혼여성은 미혼남성보다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을 안게 되는데 결혼을 고려하게 되거나 교제기간이 길게 되면 관계에 몰입하거나 헌신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경우 이성과의 친밀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서 미혼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정서적 단절의 영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정서적 단절이 기존의 자아분화 이론에서 추정하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기존의 자아분화이론에서는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관계 형성 능력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있으나(Bowen, 1994),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 모두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이성과의 친밀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단절은 부모에 대해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나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의 욕구를 통한 정서적 거리, 위장된 독립성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초기 미혼남녀에게 있어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부모와의 거리감이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초기 미혼남녀였으며, 또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의 범위를 좀 더 일반화 할 필요가 있고 성별로 균형 잡힌 표집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동일한 성인초기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대학생과 직장인은 결혼 고려나 이성교제의 내용 등 이성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변인들에 대한 경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생과 직장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방법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수준과 자기개방이 성인기 미혼남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방

향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아분화나 자기개방 수준은 이성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그 관계를 추적해 보는 다른 방법적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서 자아분화나 자기개방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몇몇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자아분화나 자기개방은 과도한 수준에서는 친밀감의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의 자아분화나 자기개방이 친밀감의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섯째, 자아분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위영역별로 접근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합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보다 정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하위영역별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자아분화 척도가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인 이성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원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개방이나 노출의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는 성인초기 미혼남녀들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분화, 자기개방의 영향력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성인초기 미혼남녀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인초기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에게 있어서 이성교제 여부나 결혼고려 여부, 교제기간 등은 공통적으로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서 관련이 있지만, 남성에게는 출생순위가 다르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위한 자료 작성이나 교육·상담 장면시 이러한 성차를 고려하는 차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성인초기, 미혼남녀, 자기분화, 자기개방, 친밀감

참 고 문 헌

장은숙. (2005). 남·녀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사회불안이 커플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금은순. (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 (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 체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교현. (1994). 자기노출과 분노억제 경향에 따른 생기, 정서 및 자기이해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애순. (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택, 제석봉, 장혁표. (1991).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종희. (1980). 자기노출과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 (2002).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김명자. (1999). 근원가족 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 적응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36-60.
- 박선미. (2003). 미혼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이성 관계 만족도와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1996). 상담자의 자기표출 유형이 내담자의 자기표출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수미. (2004).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성과 자기개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설기문. (1997).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신지영. (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원수, 변창진. (1980). 자기표출훈련프로그램. **경북대학교 학생지도연구**, 13(1), 17-50.
- 유정이. (1993). 청년기 가족관계와 대학생의 적응.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28(1), 106-113.
- 윤진. (1992).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신숙, 차용은. (2000). 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원가족에 대한 가족 건강도 지각이 노모와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4), 21-32.
- 이종원. (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만. (1992). 자기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연, 이인수, 정기수, 최명구. (2006). **인간관계의 이해**. 서울: 신정.
- 이현주. (1998). 부부의 자아분화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래길. (1993). 자기표출 신장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전주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명희. (2003). 집단미술치료가 어머니의 자기개방과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7).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영주. (2002). 한국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원가족 요인이 불안을 매개로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1), 207-221.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 정혜정, 이선희, 전영주. (2007).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윤경. (2004).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유계숙, 최연실. (1998). **결혼학개론**. 서울: 상명대학교 출판부.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한미향. (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 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M. Jr.(Ed.), *Family Therapy*(pp. 42-90).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 (1994).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orthvale, New York: Jason Aronson.
- Cozby, P. C. (1973). Self-disclosure;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2), 3-9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rfinkel, H. N. (1980). *Family System Personality Profile: An Assessment Instrument Based on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Kear, J. (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Fresno Campus.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 Levinson, M. H. (1978). *The Season's of Men's Life*. New York: Knopf.
- Lim, M. G. & Jennings, G. H. (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McCreaner, D. P.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Perception of Healthy in the Family of Origin and Fusion Intimacy in the Family of Procre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Mee-Gaik, N. G. (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Unhealthy Lik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Miller, S., Wackman, D., Nunnally, E., & Miller, P. (1988). *Connecting with Self and Others*. Littleton, C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2), 119-135.

접 수 일 : 2009. 10. 14.
수정완료일 : 2010. 02. 08.
게재확정일 : 2010. 02. 16.